BTS '그래미 후보' 제외… 오히려 영향력만 확인

무대에서 열창하는 방탄소년단의 모습. 〈사진=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그래미 어워즈 운영중인 美 레코드예술과학아카데미 비판 쇄도
포브스 "가장 심각한 실수… 그래미 인종차별은 비밀 아니다"
롤링스톤 "K팝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현 시장 흐름과 대조적 행보"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미국 대중음악 시상식 '제62회 그래미 어워즈' 후보에 제외된 것을 계기로 오히려 영향력을 새삼 확인하고 있다.

현지에서 '그래미 어워즈'를 운영하는 미국 레코드예술과학아카데미(NARAS)에 대한 비판이 쇄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경제 전문 포브스는 20일(현지시간) 'BTS의 2020년 그래미 불발이 레코드예술과학아카데미의 맹점을 드러내다'는 제목으로 '그래미 어워즈'의 이번 시상식 후보 선정을 비판했다.

방탄소년단을 배제한 것 등을 짚으며 올해 그래미 어워즈 후보 지명은 최근의 기록 중 가장 심각한 실수라고 짚었다. "그래미의 인종차별은 이미 비밀이 아니다. 61년 역사 속에서 10명의 흑인 예술가만이 올해의 앨범상을 받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그래미 어워즈가 문화적 사각지대를 드러나며 여전히 한방향으로 매몰돼 있다고 분석했다. "백인이 아닌 음악가는 R&B 또는 랩 등 다른 장르 카테고리로 치부돼왔다"면서 "주관적이다. 산업적인 정치 논리, 포퓰리즘로 의사 결정을 하는 구식"이라고 비판했다.

'올해의 레코드' 등 주요 부문이 아니더라도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베스트 월드뮤직 앨범' 후보에 오를 것이라는 예상도 빗나갔다고도 덧붙였다.

그래미 어워즈는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빌보드 뮤직 어워즈'와 함께 미국 3대 음악 시상식으로 꼽힌다. 세 시상식 중 음악적인 권위를 가장 인정 받고 있다.

앞서 방탄소년단이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수상한 만큼 '그래미 어워즈'까지 휩쓸며 미국 대중음악시상식 '그랜드슬램'을 달성할지 관심을 모았다.

방탄소년단은 올해 눈부신 활약으로 이번에 후보 지명이 조심스레 점쳐졌다. 앨범 '맵 오드 더 솔 : 페르소나'로 '빌보드 200'에 세 번째 1위에 올랐고, 월드투어로 200만명 이상을 모았다.

특히 작년에 '그래미 뮤지엄'이 주최하는 행사에 한국 가수 최초로 참여했고, 올해 초 '그래미 어워즈'에 시상자 자격으로 참석했다. 그래미 어워즈를 주최하는 미국레코드예술과학아카데미 회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보수적인 '그래미 어워즈'는 끝내 방탄소년단에게 문을 열지 않는 옹졸함을 보였다.

보수적인 미국 대중음악계 '최후의 보루'처럼 여겨지는 그래미 어워즈는 전통적으로 백인이 주류가 아닌 음악에 인색했다. 힙합 등 흑인 음악을 홀대하고 있다는 평을 받았다.

작년에 철저하게 배제당한 힙합 가수 제이지, 과거 제이지의 아내인 비욘세가 '레모네이드'라는 수작 앨범을 만들었음에도 지난해 '제59회 그래미 어워드'에서 아델에 밀려 주요상을 휩쓸 지 못했던 상황 등이 예다.

올해 초 '제61회 그래미 어워즈'에서 미국의 래퍼 겸 프로듀서 차일디시 감비노에게 '올해의 레코드'와 '올해의 노래' 등 주요상 2개를 몰아주며 이런 인식에 균열이 생기기는 했다.

하지만 방탄소년단이 이번 '그래미 어워즈' 84개 카테고리 어느 부분에도 후보로 지명되지 못한 것에서 보듯 여전히 보수적인 색채는 지우지 못하고 있다.

미국 음악매체 '롤링스톤'은 방탄소년단이 그래미 어워즈 후보에 들지 못했다는 제목으로 "미국에서 K팝이 가장 인기 있는 장르가 됐음에도 그래미 어워즈는 방탄소년단의 이름을 넣지 않았다"고 썼다. 특히 "그래미 어워즈가 K팝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현 음악산업 시장의 흐름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행보"라고 지적했다.

CNN,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등은 "그래미가 후보에서 방탄소년단을 뺀 이후 팬들이 화났다"며 소셜 미디어에서 그래미 어워즈에 불만을 토로하는 방탄소년단 팬덤 '아미'의 반응을 담기도 했다.

방탄소년단의 앨범 '맵 오드 더 솔 : 페르소나' 타이틀곡 '작은 것들을 위한 시'를 피처링한 미국 팝스타 할시는 트위터에 "방탄소년단은 (그래미 어워즈의) 많은 부분에서 충분히 노미네이트 될 만했다. 그렇지만 방탄소년단이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이 놀랍지 않다. 미국은 전체 움직임에 멀찌감치 뒤쳐져 있다. 때는 온다"고 썼다.

다만 할시가 짚은 것처럼 방탄소년단이 이미 세계 팝시장의 주류로 들어온 만큼, 머지않아 그래미 어워즈 후보에 들고 상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도 조심스레 나온다. 해외 팝 공연 관계자는 "방탄소년단의 활약을 현지에서 경계하는 분위기가 있지만 워낙 반응이 폭발적이라 철옹성 그래미도 무너지는 날이 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제62회 그래미 어워즈'는 내년 1월26일 LA 스테이플스센터에서 펼쳐진다. /뉴시스

김우빈, 청룡영화상 참석
2년 6개월만 공식 석상

배우 김우빈이 2년 6개월만에 공식석상에 등장한다.

소속사 싸이더스HQ에 따르면, 김우빈은 21일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리는 제40회 청룡영화상 시상자로 무대에 선다.

김우빈은 2017년 5월 비인두암 진단을 받은 후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치료에 전념하며 휴식을 취했다. /뉴시스

종방 '어쩌다 발견한 하루'
오늘부터 전편 연속 재방송

'어쩌다 발견한 하루'가 종방의 아쉬움을 달랜다.

MBC TV 수목극 '어쩌다 발견한 하루'는 22일 오전 12시30분부터 MBC미디어넷에서 전편 연속 방송된다.

'어쩌다 발견한 하루'는 여고생 '단오'(김혜윤)가 정해진 운명을 거스르고 사랑을 이뤄내는 학원 로맨스물이다. 2~4%대(닐슨코리아 전국기준)의 시청률을 기록했지만, 화제성은 높았다. 독특한 설정과 청춘 연기자들의 열연, 빠른 전개로 인기몰이했다.

'어쩌다 발견한 하루'는 21일 오후 8시 55분 31·32회 방송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뉴시스

개봉 '겨울왕국2' 스크린 독과점 문제 재점화

반독과점영대위 "한국 영화 다양성 저해" 오늘 기자회견

영화 다양성 확보와 독과점 해소를 위한 영화인대책위(이하 반독과점영대위)가 영화 '겨울왕국2'의 스크린 독과점을 주장했다.

반독과점영대위는 22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발표한다. 이날 영화 '블랙머니'의 정지영 감독과 제작자, 반독과점영대위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영대위는 "특정영화가 스크린수를 과도하게 점유하는 스크린독과점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며 "다양한 영화 관람을 원하는 관객들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한국영화의 다양성을 저해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한국 영화 생태계를 위해 정부, 국회, 영화진흥위원회가 함께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화를 진행해줄 것을 요구해왔다"며 "'겨울왕국2' 개봉에 따른 스크린 독과점 문제가 다시 한 번 재점화되고 있고, 개선되지 못하는 현실에 또 한 번 동시기 개봉한 한국영화들은 무너지고 있다. 스크린 독과점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겨울왕국2'는 국내 개봉 애니메이션 사상 처음으로 예매량 110만장을 넘어섰다. /뉴시스